2016. 9. 23.(금)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세계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11B면 전국

DMZ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탄력

80억 투입 관광지원센터 개관
방문객 대상 체험교육 등 역할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 북부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DMZ생태관광지원센터'가 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이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에서 지역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을 했다. 80억원이 투입된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지상 2층, 전체 면적 2950㎡ 규모로, 착공 2년 만에 건립됐다.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DMZ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체험교육,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우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해 DMZ 자연환경의 보전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방침이다. DMZ와 관련된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17.1 X 6.3 cm

경기신문

2016년 09월 23일 (금)
02면 종합

'평화·생명의 땅' DMZ 관광 활성화 시동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
체험교육·정보제공 등 역할

경기북부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관광 허브 역할을 할 'DMZ생태관광지원센터'가 22일 파주 임진각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송유면 파주 부시장, 이광기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김녕만 사진작가, 대성동 및 DMZ 마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DMZ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센터는 80억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전체 면적 2천950㎡ 규모로 착공 2년만에 건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DMZ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체험교육,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우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 DMZ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DMZ와 관련된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 2층에는 세계적 환경전문기구인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ESP·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아시아사무소가 들어선다. ESP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의미하는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네덜란드에 설립된 국제적 환경전문기구다.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2천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센터는 이날 개관을 기념해 김녕만 작가의 DMZ 미공개 사진 50점을 전시하는 특별사진전, DMZ에서 채집한 곤충표본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 'DMZ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DMZ포럼, 'ESP 아시아 사무소 비전포럼' 등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도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으로 도가 추진하는 DMZ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경환기자 jing@

17.8 X 10.2 cm

인천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02(경기판)면 종합

경기도는 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시설 '활짝'…보전·발전 나서

교육장 운영…우수성 알려

경기도는 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DMZ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내 지상 2층(건축 연면적 2950㎡) 규모의 DMZ 생태관광 거점 시설로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국비 40억원, 도비 40억원 등 모두 8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해 올 8월에 완공됐다.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해 DMZ의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 사무소를 센터에 유치해 국내외 연구원들과 함께 DMZ의 자연생태에 대한 보전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송유면 파주부시장, 이광기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김녕만 사진작가, 대성동 및 DMZ 마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

22.0 X 18.5 cm

중부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02면 종합

'평화·소통·생명'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36개국 116편 다큐 상영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8일 간 고양, 파주, 김포, 연천 등지에서 36개국 116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개막식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배우 조재현을 비롯해 부조직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허진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진모영 감독, 오멸 감독 등 영화 관계자 및 초청게스트, 관객 7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참석자 중 일부는 개막식 이후 캠프 그리브스 유스텔에서 1박 숙박 후 다음날 DMZ팸투어 참여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개막식은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 잡은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사로 꾸며졌다.

개막작은 정수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 '그 날'이다. 지난해 신진다큐멘터리작가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으로 인민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뤘다.

올해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섹션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기하는 'DMZ 비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록한 일본, 중국, 대만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전'으로 구성됐다. 상영작은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김포아트홀, 연천 수레울 아트홀에서 관람 할 수 있다.

오정인기자

17.3 X 7.1 cm

기호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02면 종합

막 오른 DMZ다큐영화제… 고양·파주 등서 36개국 116편 선보여

파주 캠프 그리브스서 7일간 행사 광파르

국제·아시아 등 4개 부문 국내외 作 상영

분단으로 삶의 질곡 보여준 개막작 '그날'

일본군 위안부 다룬 3개국 다큐 등 주목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한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2일 오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막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비무장지대(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의 이번 영화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고양과 파주, 김포, 연천 등지에서 36개국 11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국제 경쟁, 아시아 경쟁, 한국 경쟁, 청소년 경쟁 등 4개 부문에서 전 세계의 화제작과 국내 신작들이 선보인다. 개막작은 정수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 '그날'이다. 인민군이었던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남한에서 전쟁 포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남한에 정착하고 끝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삶의 여정을 그려고 있다.

올해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섹션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기하는 'DMZ 비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록한 일본·중국·대만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전'이다.

한편, 개막식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집행위원장 배우 조재현, 부조직위원장 이재홍 파주시장, 허진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진모영 감독, 오멸감독 등 영화 관계자와 초청 게스트, 시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간인출입통제선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통일에 대한 짧은 생각'이 상영됐고, '남북 청소년 공동오케스트라'를 추진 중인 린센비율 오케스트라와 탈북청년합창단인 '하나 통일원정대 합창단'이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또 개막식 참석자 중 일부는 캠프 그리브스 유스텔에서 숙박한 뒤 DMZ 팸투어에 참여한다. 영화제 상영작은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김포아트홀, 연천 수레울 아트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박윤섭 기자 ksp@kiboo.co.kr

35.4 X 8.1 cm

경인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02면 종합

'평화·생명·소통' 메시지 걸작의 진지한물음 '공감'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29일까지 116개 작품 상영

3500명 조기예매 매진 열풍

위안부 특별전 주목할 섹션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한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2일 오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집행위원장 배우 조재현, 부조직위원장 이재홍 파주시장, 허진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진모영 감독, 오멸 감독 등 영화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비무장지대(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의 이번 영화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고양·파주·김포·연천 등지에서 36개국 11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국제경쟁·아시아경쟁·한국경쟁·청소년경쟁 등 경쟁 4개 부문에서 전 세계의 화제작과 국내 신작들이 선보인다.

개막작은 정수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 '그 날'이다. 인민군이었던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남한에서 전쟁 포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남한에 정착하고 끝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진 다큐멘터리작가'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올해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섹션은 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기하는 'DMZ 비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록한 일본·중국·대만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전'이다.

도 관계자는 "영화제 개최 전 3천500여 명의 조기예매로 14회차 영화까지 매진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15.1 X 12.9 cm